

세호마린, LNG추진선 승인 획득



울산 소재 유일의 선박 신조 및 개조 엔지니어링사인 세호마린솔루션즈(주)는 LNG 연료공급장치인 FGSS System 전체 기본설계능력을 보유한 (주)영광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미국 선급협회(ABS)로부터 VLCC LNG 이중연료추진선 개조 기본설계에 대한 기본승인(AIP)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LNG 이중연료추진선 개조 엔지니어링은 현존선에 대한 EEXI 계산, 소요 LNG Tank 용량 계산, LNG Tank 배치, 복원성 및 종강도 계산 등 고도의 엔지니어링이 요구되며 LNG 이중연료추진선 개조에 대해 기본설계 인증서를 발급한 사례가 지금까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동사는 현존선에 대한 LNG 및 LPG 이중연료추진선 개조 시장이 이미 시작되었으며 IMO(국제해사기구) 친환경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향후 운항중인 대형 선박의 친환경연료추진선 개조에 대한 압박과 수요가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더불어, 동 개조 Main Supply Chain은 상하이 지역과 부울경 두 개 지역으로 양분할 수 있으며 수요를 국내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국내 연관 업체 간 협업 체계 구축 및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금번 LNG 이중연료추진선 개조에 대한 미국선급협회의 AIP 발급으로 인하여 한국 조선업계의 LNG/LPG 이중연료추진선 신조 능력에 이어 개조 설계 능력까지 글로벌 조선해운업계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데 그 의의가 크다는 것을 동 업계에서는 강조하고 있다.

세호마린솔루션즈(주)와 140 여척을 보유하고 있는 그리스 선사 Star Bulk사는 이미 작년 10월 208K B/C 10척을 이중연료추진선으로 개조하는 내용으로 MOU를 맺고 Feasibility Study Report 등을 제공하여 해운업계의 관심을 받은 바 있다.

울산시에서도 LNG/LPG 이중연료추진선 신조와 별개로 조선해양분야 전문인력 활용을 위한 일자리창출 효과가 크다는 것을 인식하고 개조사업과 관련하여 조선해양특화사업으로 친환경 LNG 이중연료 추진선박 개조 기술 개발 사업을 TP를 통해 지원하는 등 지역산업육성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Asiasi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